

## 가슴 뛰는 대학생활을 기대하며... 2475명 입학

### 2일 체육관서 입학식 편입학 149명

### 대학원 신입생 554명

2012학년도 학부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2일 오전 10시 체육관에서 신입생 24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제주대는 모집정원 99.9%가 등록했다. 또 이번에 편입학하는 학생

은 모두 149명이다.

올해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에게 제주대 배지를 나눠줬다. 허항진 총장은 고준예(정치외교 1) 신입생 대표에게 배지를 달아줘 대학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허항진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여러분들은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만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니 일생을 통해 이뤄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설계를 위해 인문학적 교양을 기를 것”을 주문했다.

올해 입학한 이승근(사회 1)씨는 “어학성적이나 학점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입학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며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렌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비롯해 각 특수대학원에서도 모두 554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각 대학원별 신입생 인원은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원 석사=150명, 박사=74명, 석박사 통합과정=6명 △행정대학원=32명 △경영대학원=60명 △교육대학원=130명 △사회교육대학원=20명 △산업대학원=60명 △통역대학원=22명

김명지 기자



“제주대학교 학생이 되었음을 선사합니다” 고준예(정치외교 1) 신입생 대표가 새내기 247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입학식 선서를 하고 있다.

<홍보협력팀 제공>

## 생협 환경개선사업 실행...학내 매점 리모델링

### 학생식당 식대 인상

### 재료비 상승·생협 출범 등 이유로 학생식당 가격 인상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교내 편의시설이 바뀌었다.

제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교직원 및 학생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기존의 한라홀, 아라홀, 종합매점, 백두관 식당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펼쳤다.

이번 방학을 이용해 이뤄진 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생협은 기존의 한라홀과 아라홀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쇼파를 없애고 새로운 탁상과 의자를 배치했다. 더 나아가 기존의 한라홀을 단순한 휴게시설에서 커피전문점 및 문구점으로 전환했으며 회의실과 같은 유용한 공간을 마련했다.

기존의 종합매점은 예전보다 더 많은 상품 판매와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종전 백두관 식당은 오래된 조리기구와 식탁, 의자 교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좋은 품질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보수와 함께 시설 명칭 또한 바뀔 예정이다. 시설 명칭은 학생들을 통해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김기석(생협) 사무국장은 “후생복지를 위해 2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환경개선사업을 했다”며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학생식당 식대가 인상됐다. 정식 100원 인상, 특식

·양식 200원 인상으로 정식은 2000원, 특식은 3000원, 양식은 2700원으로 가격이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식자재와 같은 직접 재료비의 인상과 가스, 전기세와 같은 간접 재료비의 인상, 근로장학생 장학금 지급 방식이 학교 부담에서 생협 부담으로 변경, 생협 전환에 따른 법인세·외부 회계감사 등의 비용 발생, 경기침체로 인한 자판기·매점의 매출액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 김기석 사무국장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식대인상을 피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좋은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 기자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진화 방안

<국립대 2단계 선진화 방안>

### 교수회 총장직선제 폐지 반대

### 대학본부 구성원 대상 의견수렴

### 오는 21일 찬반투표 실시키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국립대 2단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 등을 유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사회에서는 선진화 방안 대부분이 성과와 평가지표에 의존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총장직선제 폐지와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및 단과대학의 학장 공모제 도입, 성과급 연봉제 정착 등을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특히 교과부에서는 총장직선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학연, 지연 등의 파벌형성과 선거비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대학 측에 요구하고 있다.

교과부는 오는 3월까지 대학 스스로가 총장직선제 개선을 담은 학칙개정을 마무리 하면 교육역량 강화사업비에 대한 가산점 5%를 부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오는 8월 이내 대학이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학칙개정을 조건으로 MOU를 체결하면 4%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수사회에서는 교

과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고대만(초등윤리교육과) 교수는 지난달 22일 ‘교과부 2단계 선진화 방안 대응 방향’을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는 대학 구성원들끼리 자율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유도하고 있는 교과부는 대학에게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총장직선제 폐지를 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나 ‘대학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의해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본부는 총장직선제 개선에 대해 교과부가 대학의 재정지원과 부실대학 지정 등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구성원들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항진 총장은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를 간 열린 총장과 학과(부)장과의

간담회에서 “교과부의 사업방향 중 일부만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의 재원과 직결된다”며 “재원이 마련돼야 학교의 사업과 구성원의 복지 등 여러 분야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기에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기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대학 본부 측은 설명했다.

양덕순(행정학과) 기획처장은 “총장직선제 개선안이 행정지원과 연계해서 자율성 없이 추진하는 점이 반대를 몰고 온 부분도 있다”며 “파급효과가 크기에 투표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는 오는 21일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투표하기 전까지는 대학 본부, 교수회에서 설명회, 토론회 등을 열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대학 본부에서는 6일부터 4일간 총장후보직선추천제도 개선관련 대학설명회를 열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한편 교수회에서는 ‘총장직선제 폐지 관련 제주대 교수회의 입장’을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양길현(윤리교육과) 교수회장은 “각종 지표와 평가를 통해 야비하게 대학을 길들여가려는 교과부의 폭력적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총장직선제 폐지 등 주요 2단계 선진화 방안에 반대의 입장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 사 령

강민성(연호번호 2)

김동현(연호번호 2)

3월 1일자로  
기자로 임명함  
제주대신문

## 제가 젊었다면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습니다





- ☐ 수출 91%, 밖에서 벌어들인 집안을 살찌우는 기업
- ☐ 동서 균형 발전을 실천하는 기업
- ☐ 평균 근속연수가 19년이 넘고, 17년간 노사평화를 이룩한 기업
- ☐ 국내에서 가장 많은 34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한 기업
- ☐ 학교재단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사설

창의적 연구는 자유로울 때 가능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캠퍼스가 새내기들의 꿈과 희망으로 넘실대고 있다. 대학은 진리의 전당이요, 학문이나 예술을 즐기는 상아탑이다. 예나 지금이나 대학은 모름지기 진리를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가는 중대한 사명을 안고 있다. 만일 그것이 한낱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다면, '진리', '정의', '창조'라는 우리 대학의 교훈도 수정해야 마땅하다.

신자유주의를 구가하는 현 정부에 와서 대학사회가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문탐구보다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열중이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는 학생들도 대부분 취업준비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요즘 들어 학생들에게 교양있는 전문적 지성인이 되라는 주문은 사치스런 말이 되고 말았다.

대학교수를 역시 뉘달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성과급연봉제가 시행되어 매년 평가를 받게 되면, 심도있는 창의적 연구는 불가능해지고 설익은 논문들이 양산될 것이다. 그리고 교수들은 승진과 연봉 상승에만 몰두하면서, 현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다. 비판적 지성인으로서의 교수의 역할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런데도 최근 교육부에서는 대학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국공립대학의 총장직선제 폐지, 단과대학장 공모제, 총장의 대

학운영성과목표제,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및 재정회계법 제정 등의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사명과 역할의 근간을 크게 뒤흔드는 것이다.

대학은 자유로운 탐구를 통해서 미래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대학은 시대를 떠나서 그 사회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라야 한다. 초창기 중세대학은 절대권력이었던 세속군주나 교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얻기 위해 투쟁하였고, 그러한 대학의 자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대명천치 민주사회에서 대학 자치권을 축소해야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요구를 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생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문 대신 아르바이트에 전념해야 하는 것은 학생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걱정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립대 등록금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교수들도 창의적 연구를 위해서는 성과급연봉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리', '정의', '창조'라는 우리 대학 교훈은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주사회 뿐만 아니라 인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도서관에서 자유로운 분위기가 넘쳐나야 한다. 창의적 연구는 권력 뿐만 아니라 자본의 뒤통로부터도 자유로울 때 가능하다.

2012년 새 학기에 생각하는 2030 청년 정치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새 학기이다. 제도 자체가 중세 유럽에서 유래된 것이어서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구미 대학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60년의 연륜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그 60년 동안 우리 대학을 거쳐 간 동문, 교수, 직원들의 애환과 헌신, 소망과 좌절 그리고 극복, 그 모든 것을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 번 대학의 미래, 우리의 위상을 가늠해 보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이어지는 역사적 공동체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0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학은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졸업과 입학이 이어지면서 대학은 항상 20대 청년으로 남는 것이다. 우리가 대학의 역사를 기억해 보는 것도, 지금 노년이 되었을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20대, 그 꽃다운 청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때 그 청년들이 지녔던 포부와 소망,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는 좌절과 극복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늠해 보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포부와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궁금해진다.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 새 학기, 지금 이 순간 제주대를 지키고 있는 청년세대들의 포부와 소망

은 무엇인가. 취업? 중요한 문제이지만 흠족하지는 않다. 그 취업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들 다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030 청년 정치'라는 화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20, 30대 청년들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SNS 등 새로운 의사소통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청년 세대에 대한 정당들의 구애가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2030 청년세대들의 주체성 여부이다. '2030 청년 정치'가 기존 정치권의 구애 대상에 머무르고 말 것인지,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기존 정치권을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청년세대 자신들의 주체성 여부에 달려 있다.

물론 2030 청년세대들이 현실적으로 소망하는 이해관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년세대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승화시켜 그것을 보편적 아젠다로 설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30 청년 정치가 흥행용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2030 청년세대들의 정치적 문제의식 자체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훗날의 역사도 그러한 문제의식과 실천을 기억하려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2030 청년세대들은 역사적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인터뷰 여대생커리어개발 서포터즈

여대생이 담당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된다

“제주대 5000 여학우 모두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여대생들이 쉽게 모험심을 갖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대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들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오승은 행정학과 교수)에서 운영하는 여대생커리어개발 서포터즈의 김수연(행정학과 4)씨와 홍민지(생명공학부 3)씨.

지난해 11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이들은 학생들에게 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으며 센터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

도록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라는 유익한 곳이 있는데도 많은 여학우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대생서포터즈의 주요활동은 센터의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특히 서포터즈는 자유롭고 빠르게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학생들과의 소통도 용이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서포터즈가 구성한 페이스북에는 수십명의 여대생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만든 페이스북에는



지난 1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김수연(왼쪽)씨와 홍민지씨가 여대생커리어개발 서포터즈 활동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리가는 기업탐방 고블樂’, ‘항공사(TOPAS) 아카데미’, ‘서비스 컨설턴트(CS Leaders)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 안내가 게재됐다. 또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SNS오픈기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여학생이 당대한 여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성 기자

언론미디어센터 주간에 김동운 교수



김동운 교수(국어국문학과)가 언론미디어센터 신입 주간교수로 3월1일자로 임명됐다.

김 교수는 제주대신문사, 영자신문사(The Islander), 교육방송국(JEBS) 등의 학내언론사를 총괄하게 된다.

김 교수는 제주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대학교 대

학원에서 「1950년대 신문소설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5년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로 임명된 이후 조교수를 거쳐 현재 국어국문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내보직으로 2010~2012년에 인문대학 부학장과 국어국문학과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지난 1984년부터 3년 동안 제주대 신문 학생기자로 활동했는가 하면,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제주대신문 편집간사(조교)로 근무한 바 있다.

장애대학생 최우수 평가

제주대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에서 2008년에 이어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지난달 29일 교과부는 지난해 실시한 전국 331개 4년제 및 전문대학의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결과를 발표

했다. 제주대를 비롯한 전국 34개 대학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평가는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3개 영역을 종합평가해 이뤄졌다.

제주대는 교수·학습과 시설·설비에서 최우수, 선발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김소영 기자

201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 임용자

2012학년도 1학기 전임공임 공채를 통해 16개학과 14개 분야에서 16명의 교수가 3월 1일자로 새롭게 임용됐다. 이번 교수 공채 경쟁률은 9대1을 기록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가장 높은 24: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서영표(사회학과)  
조교수-환경사회학  
△학사: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 University of Essex Sociology  
△박사: University of Essex Sociology  
최종학위는문명: The Theoretical Reflection on the Radical Greater London Council(1981-6)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British New Left

오성중(생명공학부)  
부교수-가족번식생리  
△학사: 제주대 축산학과  
△석사: 서울대 축산학과  
△박사: 서울대 동물자원과학과  
최종학위는문명: 소 체외수정란에 있어서 PCR 기법에 의한 성판별과 발달단계와 프라마인 혈청첨가가 성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이명곤(철학과)  
조교수-서양중세철학  
△학사: 경북대 철학과  
△석사: 경북대 철학과, 리움가톨릭대학 철학과  
△박사: 파리제1대학 철학과  
최종학위는문명: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기초한 인간의 본질과 실재론적 형성 - 인간의 윤리적 삶과 영성적 삶 사이의 관계정립을 위한 철학적 연구

김배성(산업응용경제학과)  
조교수-농업경제(생산경제·응용계량)  
△학사: 고려대 농업경제학  
△석사: 고려대 농업경제학  
△박사: 고려대 농업경제학  
최종학위는문명: 비모수 접근모형을 이용한 한국 미국 생산의 기술구조와 생산성 분석

박운정(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학사: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석사: Purdue University  
△박사: Purdue University  
최종학위는문명: Ingluence of Online Consumer Reviews on Tourists' Information Search Outcome and Their Attitude Change

박상울(해양의생명과학부)  
전임강사-식물학  
△학사: 성균관대 생물학과  
△석사: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박사: 부산대 생물학과  
최종학위는문명: Production dynamics of three Zostera species on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김경락(해양산업경찰학과)  
조교수-형사법  
△학사: 건국대 법학과  
△석사: 중앙대 법학과  
△박사: 중앙대 법학과  
최종학위는문명: 오상과잉방위의 형사책임

정지현(기계시스템공학부)  
조교수-제어이론  
△학사: 부경대 기관공학과  
△석사: 부경대 제어기계공학과  
△박사: 부경대 제어기계공학과  
최종학위는문명: TRGC 주행제어를 위한 계측시스템 및 제어계 설계에 관한 연구

현승엽(통신공학과)  
조교수-초고주파 및 광파공학  
△학사: 제주대 통신공학과  
△석사: 고려대 전파공학과  
△박사: 고려대 전파공학과  
최종학위는문명: Electromagnetic Characterization of Impulse Ground-Penetrating Radar

박웅(음악학부)  
전임강사-오페라  
△학사: 연세대 성악과  
△석사: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국립음대 성악과  
△박사: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국립음대 오페라학과  
최종학위는문명: Der Ursprung von Hoffmanns Erzählungen

고경남(풍력특성화협동과정)  
전임강사-생산공학(기계시스템공학)  
△학사: 제주대 기계공학과  
△석사: 제주대 기계공학과  
△박사: 群馬大學(일본) 공학연구과  
최종학위는문명: Characteristics of the Diesel Spray impinging on a Wall

이인회(교육학과)  
조교수-교육리더십 및 교육개혁  
△학사: 고려대 사학과  
△석사: Unfication Theological Seminary△박사: University of Bridgeport  
최종학위는문명: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ractices of New York State Chattrer School Principals

임길채(의학과)  
조교수-의학  
△학사: 연세대 의학과  
△석사: 울산대 의학과  
최종학위는문명: Low bone mineral density increases the risk of transient hypocalcemia after total thyroidectomy

현창림(의학과)  
전임강사-뇌신경과학  
△학사: 제주대 의학과  
△박사: 서울대 의학과  
최종학위는문명: 제1형 근육섬유에서 COX-2의 특이적 발현 규명

#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해라” 제주대의 작은 영웅들

## 학생생활관 환경미화원 일동 폐품 모아 장학금 전달 “고학생 응원해주고파”

“내가 그 돈을 쓰려했으면 힘들게 안 모았어. 돈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없어야지.”

학생생활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오보미(가명)씨에게 장학금 50만원을 지난달 23일 전달했다. 관생들이 버린 쓰레기 중 공병, 캔, 유리 등을 분리수거하고 팔아 모은 돈으로 보미 씨에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라며 전달한 것이다.

지인을 통해 보미 씨의 어려운 가정 사정을 알게 된 이들이 먼저 도움을 의 손길을 보냈다.

이들의 선행을 보고 ‘여유 있는 자들의 호의’로 뭔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닌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침부터 이어지는 하루 8시간의 중노동으로 그들의 몸은 녹초가 되고 만다. 그러다보니 남들이 하는

봉사활동도 할 시간이 없었다.

이들 선행의 시작은 점심시간에 갑자기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보자는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6명 모두 동의해 의기투합해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힘든 줄도 몰랐다. 예전 같으면 쓰레기 처리업자에게 줘들 텐데 어려운 학생을 도와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쓰레기를 모으고 또 모았다.

그러나 폐품 수집이 순탄치 만은 않았다. 쓰레기를 들고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 허리가 쑥실 때가 많았다. 또 주위에서는 미화원들이 어려운 학생에게 줄 장학금을 모은답시고 ‘무슨 일을 벌이는 거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곳도 있었다.

세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모았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조금 더 힘을 보태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들은 장학금을 주는 순간에도 부끄러웠다. 당신들이 주신 돈이 너무 적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



지난달 23일 학생생활관 환경미화원 일동이 오보미(가명)씨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가운데 보미씨를 가운데 세게방향으로 전희춘씨, 고옥선씨, 강금자씨, 문영희씨, 양인자씨, 김용봉씨

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음 학기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보미 씨에게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보미 씨는 환한 미소로 감사함을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보미 씨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의 모습은 딸과 부모님의 모습이었다. 보미씨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정말 고생하셨다”며 “정말 마음이 예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김용봉(환경미화원)씨는 “보미 학생이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며, 앞으로 도움 받은 만큼 주위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미씨는 “사회에 나가서 환경미화원분들이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공부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 사회과학대·예술디자인대 출범



지난 2일 학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과학대학 헌판식이 열렸다.

사회과학대학과 예술디자인대학이 지난 1일자로 새롭게 출범했다.

사회과학대학(학장 강근형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2일 건물로비 입구에서 허향진 총장, 강근형(정치외교) 사회과학대학장, 고영철(언론홍보) 전 법정대학장, 임진범(언론홍보학과 4)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판식을 가졌

다.

사회과학대학은 기존에 있던 법학부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명칭을 바꾸게 됐다.

예술디자인대학(학장 김방희 조소전공 교수)도 지난 1일 공과대학에 속했던 산업디자인학부, 예술학부를 하나로 묶어 출범했다.

김명지 기자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꿈의 대화

‘대학 새가족과 함께 하는 꿈의 대화’ 프로그램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학생들이 대학 초기에 가지는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부모, 동료들과 함께 극복해 활기찬 대학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오전에는 ‘꿈 두드림’이라는 무언의 리듬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익히는 것으로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오후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학생의 모범사례 발표, 대학생활 및 삶의 비전 설계와 공유를 위해 코칭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비춰볼 수 있던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했다.

김은지(해양산업경영학과 1)씨는 “프로그램 중 재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목표를 잘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이런 프로그램

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상진(동양학과 1)씨 학부모인 남영선씨는 “이러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짧게 진행돼 아쉬웠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고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영(기초교육원) 행정팀장은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총학생회나 학과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세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 외교원 수강사례 수기 공모

외국어교육원(원장 권영근 영어영문학과 교수)이 오는 16일까지 원내 강좌를 수강해 실력향상에 성공한 사례를 담은 수기를 공모한다.

A4용지 1매 내외의 수기와 함께 참가신청서를 flicnu.jeju.ac.kr로 보내면 된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명씩 선정하며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754-2277)로 문의하면 된다.

## 입학식사

# “넓은 시야와 열린 생각으로 도전하라”

자랑스런 신입생 여러분, 제주대학교 가족 모두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뒷바라지 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학부모님들께는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제주대인’이 된 신입생 여러분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우리대학의 자랑스러운 동문이신 김우남 국회의원님, 김태환 총동창회장님, 김남식 기성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올해는 제주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여러분들을 새 식구로 맞이하게 돼 더욱 기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60년 동안 ‘진리’, ‘정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 국가와 인류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 해내면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를 대표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학은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교육대와 사범대를 함께 보유한 전국 최초의 국립 종합대학교입니다.

또한 전문법조인과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있고 550병상 규모의 대학교병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2개 단과대학과 9개 대학원이 개설되어 운영되는 등 교육여건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6위 이내의 최상위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대학교는 규모와 내실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글로벌 인재육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가고객만족도(NCIS) 조사에서 지난해 전국 200여개의 4년제 대학 중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학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우리대학교는 지난해 재학생 1만명 미만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학교육강화역량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은 정부지원액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개교 60주년을 맞아 제주대학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는 2014년까지 국내 20위권 상위 대학으로의 도약이 그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대학교는 ‘글로벌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 대학’을 경영비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달성을 위해 ‘6대 선진화 전략’과 여러 가지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오로지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만을 지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학생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희망찬 미래 설계를 위해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험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개교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점에 제주대 일원이 되었습니다. 모교가 될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여러분의 꿈과 날개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귀중한 학창시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주대학교에서의 시간은 인생에서 활용할 학문적 지식을 쌓고, 인생의 지혜를 터득하며, 인생을 함께 할 많은 사람들과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넓은 시야와 열린 생각을 갖고 더 멀리 보고 더 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주대학교의 전 교수와 직원들은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충실한 학업을 통해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데 열심인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제주대학교호’에 함께 승선하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면서, 모교인 제주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불타오르는 정열, 풍부한 상상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향진 총장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번지

전화안내 064)754-2114

인쇄 제주일보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FAX 064)756-2204

홈페이지 news.jeju.ac.kr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매역에 바라는 점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생각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연락처, 학과 및 게재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press@jeju.ac.kr입니다.



안성조(법학과) 조교수-형사법

△학사: 연세대 법학과

△석사: 고려대 법학과

△박사: 서울대 법학과

최종학위논문명: 법률의 착오에 관한 연구



윤은경(법학과) 조교수-법학

△학사: 고려대 법학과

△석사: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직교수 임명

▲ 2월 18일자=△교무처장 신동범(식품영양) 교수 △학처처장 김석중(해양산업경영) △기획처장 양덕순(행정) 교수 △산학협력단장 이남호(화학) 교수 △취업전력본부장 임재운(통신공학) 교수 △통역대학원·외국어교육원장 권영근(영어영문) 교수 △경영사업단장 김동욱(회계) 교수

▲ 3월 1일자=△인문대학장 임동춘(중어중문)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강근형(정치외교) 교수, △경상대학장 김희철(무역) 교수, △생명자원과학대학장 유영봉(산업응용) 교수, △해양과학대학장 이준백(지구해양) 교수, △수의과대학장 이두식(수의학) 교수, △예술디자인대학 김방희(조소전공) 교수 △박물관장 김동진(사학) 교수 △학생생활관장 김봉애(생활환경복지) 교수 △인문미디어센터 주간 김동윤(국어국문) 교수

주요 보직교수 인터뷰는 이번호(4.5면)에 이어 제867호(3월 21일자)에는 통역대학원장 겸 외국어교육원장, 취업전략본부장, 경영사업단장 등의 인터뷰를 실습니다.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위한

2012년1차 특별 5주 프로그램!!!

◇ 강좌기간 : 2012. 3. 12(월) ~ 2012. 4. 13(금) (매주 월-금, 5주 24시간)

◇ 접수기간 : 2012. 3. 2(월) ~ 3. 9(금) 오후 5시

◇ 인터뷰기간(원어민 회화 강좌 신청 시) : 2012. 3. 5(월) ~ 3. 9(금) 오후 1시~3시

◇ 수강신청방법

① 원어민 회화 강좌 신청 시, 인터뷰 실시

②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http://fli.jeju.ac.kr>) 접속

③ 수강신청 후 수강자 명의 무통장 입금 (타인 입금 시 신청서 란의 입금자명과 동일 명 입금요망)

④ 입금확인 후 수강 등록됨

→ 수강신청 후 24시간 이내 미입금시 자동 수강신청 취소

⑤ 수강신청 등록여부: 입금 2시간 후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http://fli.jeju.ac.kr)로 확인

◇ 수강료 입금 계좌 : 농협 954-01-024722 (예금주: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 수강자들을 위한 혜택

- 출석률 100%자에게 문화상품권 증정

- 출석률 90% 이상인 자에게 해외문화체험 신청 자격(학부재학생에 한함) 및 무료 모의토익 응시자격 부여

-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다음 차수 등록 시 10%씩 누적 할인

→ 1차부터 연속 수강할 경우 최종 6차 등록 시 50%할인

◇ 강좌전환 및 환불 규정

• 강좌전환 : 개강 3일 이내 전환 가능(단,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개강 전 및 개강일 환불 : 전액 환불

• 개강 후 2~3일 : 80% 환불

• 개강 후 4~5일 : 50% 환불

• 개강 후 6일 이후 : 환불 불가

• 폐강된 강좌 : 전액 환불

◇ 개설강좌

- 기초영어회화(기초영어회화, 입트이는 영어회화)

- 원어민영어회화(Level 1, Level 2, Level 3, Academic Presentation)

- 시사영어(CNN 시사영어창치)

- 초·중급영어(영문법, 줄기, 영문법, 감점기, Writing 감점기)

- 중국어(중국어회화 1, 3, 4, 중국어 신 HSK준비반)

- 일본어(일본어회화, 일본어회화 1)

- 프랑스어(프랑스어 초급-1)

- 독일어(기초독일어)

◇ 문의처 :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 754-2291-2, Homepage : <http://fli.jej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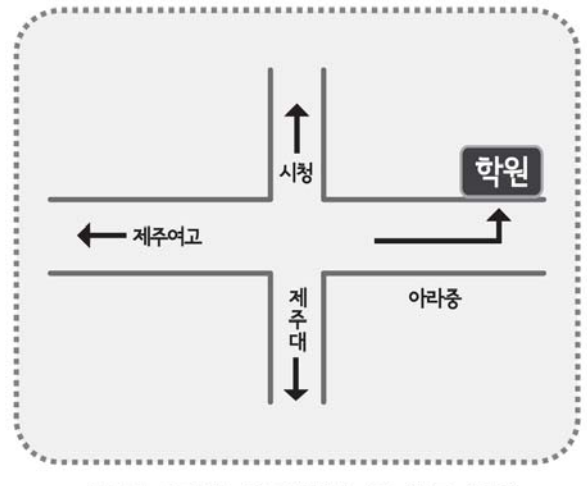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주말교육가능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신동범 교무처장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

-임명소감은.  
“교무처는 하는 일도 많고 대학 내에서 중요한 부서이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높다. 앞으로 온 힘을 다해 일하겠다. 또 제주대 구성원 모두를 위한 교무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무처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에 교무처에 대해 불만사항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



강의전담 교수제 도입해

교육의 질 높일 것

학부교육 선진화 통해

선도하는 대학 돼야

이다.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다. 또 교무처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하겠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강의전담 교수제를 도입하겠다. 강의 부분의 능력이 검증된 교수를 임용할 것이다. 이 교수들은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다. 또 겸임교수를 활성화시켜 산업체와의 협력 체제 등을 강화하겠다. 이와 함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교원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강의현장에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출석확인 업무를 간소화시켜 강의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장기 결석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에 우리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정이 된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학부교육 선진화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우리대학이 각종 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실히 준비하겠다.”  
-대학 구성원에게 한마디.  
“대학에는 학생과 교수가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다. 60년이라는 대학 역사 속에서 큰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제주대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대학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협력해 대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주대는 정말 제대로만 이용하면 학생들은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학생들이 좋은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길 바란다.” 김민성 기자

김석중 학생처장

“학생복지 위해 경청과 소통에 역점”

-임명소감은.  
“대학은 학생과 교수라는 두 개의 요소가 살아 있어야 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 문제, 반값 등록금 문제 등으로 인해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고민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과 교수라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복지할 것

국책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줘야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은.  
“얼마 전 중앙자치기구의 실무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학생들이 어떤 복지를 원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들과 의견 교류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복지를 해나가겠다. 또 가능한 한 제주대 학생들이 대학의 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하고 깊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로 인해 복지가 악화될까 우려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종전에 실시했던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산이 줄어 사업축소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 당국에서는 많은 일을 통해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한 예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 44억 정도를 지원받았다. 대략 95%의 예산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러

한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국책 사업들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장도 겸직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와 관련한 부서와 협의해서 장애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학생들은 대학문화를 좀 더 심도있게 알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다양한 고민을 한 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요즘 많은 학생들이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민으로 인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용기를 갖고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멘토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과 열정이라는 대가를 기꺼이 치를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다.” 김민성 기자

양덕순 기획처장

“대학발전 목표와 방향 통해 경쟁력 강화”

-임명소감은.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시행으로 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등 난제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시기에 기획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개교 60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에 여러 노력을 통해 대학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현안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학내 구성원들



2014년까지 경쟁력 이끌어

국내 20위권 대학 진입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등

슬기롭게 대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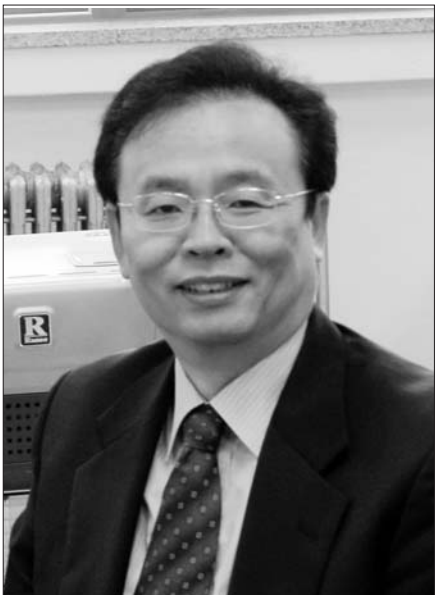
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또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다.”  
-기획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기획처의 중요한 임무는 대학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획처는 제주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 지원해 2014년까지 우리대학이 국내 20위권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전략과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첫째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발전 목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성과에 따른 후속 및 보완 조치를 진행하겠다. 둘째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지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그리고 엄정한 평가를 병행 실시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의 차별화를 통한 내부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  
셋째로 자율과 책임은 기본이다. 각 단위 부서에서 담당할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제시해 성과를 평가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다. 넷째로 협력과 연대가 시급하다. 주요한 대학발전 사항에 대해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 확대가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는 정책이 완전히 결정되기 전에 정책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때 높아지는 법이다. 지역사회와 산업체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의 연계에도 중점을 뒀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실천하겠다.”  
-구성원에게 한마디.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등 대학의 주요 현안들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난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선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질책은 물론이고, 격려도 필요하다.” 김명지 기자

이남호 산학협력단장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산학협력단 될 것”

-임명소감은.  
“산학협력단은 산·학·연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의 중심이다. 그만큼 산학협력단은 중요한 기관이다. 격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산학협력 부문에 있어 대학구성원의 만족향상을 위해 힘을 계획이다.”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산학협력단은 현재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두뇌한국21(BK21), 대학IT



국책사업 통해 연구비 확충,

창업보육기능 강화

산학협력 중점 교수 육성도

오는 5월 기술지주회사 설립

연구센터,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기술지도대학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여러 국책사업을 유지해 연구비를 확충하는 데 힘을 계획이다. 또 교수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서비스 질을 강화시키겠다.  
둘째로 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하겠다. 여건이 어려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대학 소유의 기술지원, 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지원, 대학 소유의 장비 제공, 창업교육, 경영지도 등의 각종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해 제주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일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 기여에도 앞장서겠다.  
셋째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육성하는데 힘쓰겠다. 산학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수들은 연구, 교육, 사회봉사라는 3가지 요소 외에도 산학협력력을 새롭게 요구받고 있

다. 하지만 산학협력에 힘쓰는 교수들을 관리할 부서가 우리대학에는 없는 상황이다. 우선 산학협력단내 교수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힘을 계획이다.”  
-기술지주회사 설립 계획은.  
“올해 5월 중으로 제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6개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도 마쳤다. 이 외에도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확대를 위한 전략은.  
“대학이 새로운 특허를 갖기 위해서는 교수들에게 연구하도록 독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에 산학협력단은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분야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구성원에게 한마디 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산학협력단의 1차 고객은 대학 구성원들이다. 앞으로 대학 구성원 중심의 산학협력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교수님들이 앞으로도 산학협력에 힘써주시고 새로운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 김명지 기자

임동춘 인문대학장

“학생들의 열정과 의지 복돋는 데 주력”

-임명소감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하기보다는 내가 학장으로 있어야 할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고민이 많았다.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게 있지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 마음이 무겁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첫째로 지속사업으로 기존의 취업트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기존 취업트랙 계속 추진

연구 위한 발전기금 마련

오리엔테이션 교육 프로그램

새롭게 바꿀 것

역점 사업은 인문대학을 위한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공계열 학과에서는 교수들이 해외에 나간다가나 학회에 참석할 때 드는 거의 모든 비용이 국가나 단체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해결된다. 그러나 인문계열 학과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 사비를 써야 한다. 따라서 발전기금 마련을 통해 교수들이 마음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대내적으로는 취업캠프에, 대외적으로는 발전기금을 모으는데 주력하겠다.”  
-인문대학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은.  
“행정상으로는 항상 처음에 소개되는 단과대학인데, 실체는 다른 단과대학보다 부족한 면이 많다. 그렇다고 인문대학을 취업 위한 대학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학생들의 취업에도 당연히 많은 신경을 쓰되, 지성인으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최고로 삼는 인문대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젊은이들의 꿈은 클수록 좋다. 꿈은 크게 갖고,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진정한 고수는 기초부터 천천히 한단계씩 올라간다. 인내하며 내공을 쌓는것이 중요하다. 단과대학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꿈을 지킬 수 있도록 박수와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 모든 일에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치열한 젊음을 누리기 바란다.” 김소영 기자

강근형 사회과학대학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임명소감은.  
“법정대학이 24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사회과학대학으로 바뀌어 섭섭한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사회과학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단과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임기 동안 추진할 사업은.  
“첫째로 학생들 진로지도와 취업지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회과학대학 자체적으로 모의면접과 개별면담 등의



학생들 진로·취업에 만전

국제교류 협력 강화

사회과학계열 학과들이

사과대에 소속되도록 노력

취업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또한 5급 공무원 시험, 언론사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고시반을 운영해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아울러 법학전 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이다. 둘째로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현재 행정대학원은 일본 와세다대학 오쿠마 공공경영대학원과 교수 세미나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행정학을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학술교류를 확대시켜 더욱 포괄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겠다. 일본 대학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과의 교류도 적극 모색해 보겠다.  
셋째로 원어민 강좌 수강을 독려해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현재 사회과학대학은 단과대학 독자적으로 외국인 원어민 강좌를 운영하고 있

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원어민 강좌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 내년도부터는 2개 학기에 걸쳐 원어민 강좌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등 학생들에게 적극 독려를 할 생각이다. 넷째로 학생들과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언론사, 정당, 시민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학생들의 멘토링 사업과 취업에 적극 활용하겠다.”  
-사회과학대학의 현안은.  
“법학부가 폐지됨으로써 사회과학대학이 왜소해졌다. 이를 위해 경제학과, 사회학과 등이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해당 학과와 협의를 하겠다. 또 사회과학계열의 학과 신설을 모색하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들이 사회과학대학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폐기와 열정은 학생이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다. 이를 위해 교수님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사회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김명지 기자

김희철 경상대학장

“경상대 학생들의 취업에 중점”

-임명소감은.  
“요즘 우리 대학을 둘러싼 환경들이 어려  
워지고 있다. 취업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학  
평가, 법인화 문제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호락하지 않다. 이런 시기에 학장이란 중책  
을 맡아서 책임감이 앞선다. 미력하나마 경  
상대학의 발전과 더 나아가 우리 대학의 발  
전에 기여하고 싶다.”  
-경상대학의 발전계획은.  
“앞으로 임기동안 추진할 경상대학의 목



경상대학을 제주대에서

취업을 1위

연구업적 1위

행정만족도 1위 만들 것

생들의 취업을 향상을 위해 발로 뛰겠다.  
구체적으로 멘토링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업과 취업전략본부, 기초교육원  
등 여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파트너  
십을 강화하겠다.”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에 관심  
이 많다.  
“경상대학은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공인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취업을 위한 자  
격증이 많은 편이다. 이미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고시반  
활성화는 물론 여러가지의 지원을 통해 학  
생들의 진학과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  
취업이나 자격증 획득을 위한 단계 차원에  
서의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  
성화 시키겠다.”  
-경상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달을 향해 화살을 쏘라’라는 말이 있  
다. 꿈은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는 의미  
다. 요즘의 학생들을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는 자  
의 것이다.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  
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는 앞  
에 나타날 것이다.” 김동현 기자

표는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단과대학 취업  
1위, 연구업적 1위, 행정만족도 1위를 기록  
할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Brand Value  
(이미지 강화), Career Enhancement  
(취업 강화), Research Acceleration  
(연구성과 향상) Environment Im-  
provement(환경 개선) 등 4가지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영 프로그램을 마련  
해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영 마인드를 가리  
치고 싶다. 우수 신입생 유치에 앞장 설 것  
이다. 또한 경상대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  
여 지역사회에서 발전기금을 모금하겠다.  
또 다목적 강의실을 만들어 학업 분위기를  
고취시키겠다.”  
-임기중 추진할 중점 사업은.  
“3년간 직업능력개발원장(현 취업전략  
본부)을 지냈다. 그러다보니 우리 대학에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후와 필요조건  
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

송일상 사범대학장

“모든 학생들의 취업 위해 최선”

-임명소감은.  
“최근 대학을 둘러싼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범대학장에  
임명돼서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반면 더  
욱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사범대학은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교원임용시험에 많이 합격해 일  
선 중등학교에서 교사로서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하



독서경연대회 열어

글쓰기 문화 정착시키 더

학생 문제 해결 위해

예비교사단계부터 준비

업한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특강도 하고 수  
업 실현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독서경연대회도 열 것이다. 독후감 경연 대  
회를 통해 글쓰기 문화를 정착 시키겠다. 이  
를 통해 학생들이 훌륭한 인성과 품성을 갖  
출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매스컴에서 떠돌고 있는 학교내 폭력  
과 왕따 문제에 대한 의견은.  
“요즘 청소년 문제, 학교 폭력 문제와 같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  
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예비  
교사 단계에서부터 그런 문제에 대한 상담  
기술과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  
술을 철저히 배워야한다고 생각한다. 상담  
심리와 관련된 교과목 개설과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사범대 학생들이 앞으로 교사가  
돼서 학교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범대 구성원  
모두가 자신감과 자부심, 희망을 갖고 대학  
생활을 해나갔으면 한다. 구성원 각자의 노  
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유영봉 생명자원과학대학장

“미래 농업산업 육성 통해 지역·국가에 기여”

-임명소감은.  
“교수 생활 20년 만에 학장이라는 보직을  
맡게 됐다. 일단 맡고 보니 걱정이 앞선다.  
생명자원대학이 농학계 교육연구에 아쉬움  
이 남는다. 물론 학생들의 취업률, 신입생  
유치 등은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없지만  
분명 다 풀기 어려운 숙제같다는 생각이 든  
다. 요즘 단과대학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걱  
정이 앞서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비전은.  
“생명자원과학대학이 농학계 교육을 하  
는 곳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기보단 시대  
변화에 맞춰 임기응변식의 대응만 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우선 교수님들과 상  
의해서 학문적인 틀 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생각이다. 우리의 비전은 지  
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농학  
계 대학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미래 농업  
산업과 지역, 더 나아가 국가에 기여하고 싶  
다.”  
-중점사업을 둘 사업은.  
“농학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  
문분야이다. 농학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  
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달리 생각하는 경  
향이 있다. 농학계 대학이라고 스스로 하잖  
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우리의 먹  
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큰 문제이다. 잘  
못된 인식을 우선 바로잡은 후 여러 사업을



생명대 본연의 역할 아쉬워

새로운 발전계획 수립할 것

제주지역 기업들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 진행할 방침

진행하겠다. 먼저 제주 지역에 있는 기업들  
과 프로젝트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  
대학과 학점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수학 제  
도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농학  
계 4년 장학금도 추진해 볼 생각이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한미 FTA와 로컬 푸  
드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미 FTA가 되면 노동비, 토지값이 비  
싼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가 매우 힘들다. 개방을 위해서는 우리 농업  
의 생산기반을 정비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로컬 푸드에 대해서는 농  
민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후생증대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를 만들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  
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생명대 구성원들에게.  
“교수들은 지식인이라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도받은 제자들을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을 때 우리사회는  
그 교수를 존경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  
감을 가지고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교수  
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김동현 기자

이준백 해양과학대학장

“특성화를 구체화하는 사업 전개”

-임명소감은.  
“대학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해양과학대학장을 맡게 되어 마  
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막중  
하다. 그렇지만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이 어  
려움을 헤쳐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해양과학대학은 해양특성과 대학이다.  
'특성화' 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동중국해와 이어도 관리할

연구기관 만들기에 최선

학생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취업촉진위 활성화

-해양과학대학의 발전 방향은.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해양특성화대학으  
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  
다. 제주도는 바다가 갖는 중요성이 높음에  
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해양과학대학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전략적인 홍보가 필  
요한 시점이다.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도 제주도 해안을 연구, 관  
리하고 책임지는 해양과학대학으로의 대민  
홍보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육지부 해양계열 대학보다 우리대학은  
학문과 연구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다. 그  
러나 학생들의 자부심이 약간 부족한 것 같  
아 아쉽다. 해양대학 학생들이 제주의 바다  
를 연구하고 해양 산업을 선도한다는 자긍  
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 학생들 스  
스로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  
활에 충실히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에서의 충실한 학문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취업에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김소영 기자

이두식 수의과대학장

“즐겁게 공부하는 대학 만들겠다”

-임명소감은.  
“현재 수의과대학은 건물 신축 사업은 물  
론 수의학 교육인증제 취득을 앞뒀 있는 중  
요한 시기이다. 그런만큼 책임감이 무겁다.  
학장이라기 보단 수의과대학을 위해 봉사  
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대학  
의 수의과대학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임  
기 동안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려 한다.”  
-임기중 역점을 둘 사업은.  
“건물 신축과 수의학 교육인증제도가 긴



수의학 교육인증제 대비해

수의학 교육인증 업무 추진

무궁무진한 연구분야 맞춰

살이되고 피가되는 교육할 것

과 학생들은 밤이 되도 쉬지 않는다. 수업시  
간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실에서  
실습의 연장시간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  
신적으로 피로한 학생들도 자주 보인다. 동  
아리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즐겁게 학교를 다  
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또 시험공  
부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기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  
-수의과대학 신축 건물에 대해 한 마디 하  
신다면.  
“현재 전국 대학의 수의과대학 중 우리  
대학이 학교 시설이 낙후돼 있다. 특히 연구  
· 교육 공간 부족은 가장 큰 문제이다. 건물  
이 신축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영국에 극작가이고 시인이며 노벨문학  
상을 받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명을  
보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줄 알았다’ 라  
고 적혀 있다. 생각한 것을 바로바로 시행하  
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우  
물쭈물 하지 말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았으  
면 한다.”

-임명소감은.  
“초대학장이다 보니 어깨가 무겁다. 예술  
디자인대학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단과대학의 면모를  
빨리 갖추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초대학장  
이 우선 해야 할 일 같다. 그러기 위해서 구  
성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  
-예술디자인대학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20여년 동안 각각 다른 가정환경에서 살  
았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을 상상해

도민들에 대한 봉사 통해

사랑받는 대학 건설에 전력

예술디자인 영재원 설립

철저히 준비하겠다



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예술  
디자인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술디  
자인대학 구성원들이 가진 재능을 도민들  
한테 기부하고 싶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 찾아가는 음악회 등  
을 통해 농촌지역, 중산간 지역에서 봉사할  
것이다. 그런 일을 계속한다면 도민들이 우  
리를 인정하고 사랑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다.”  
-도내 예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노  
력을 할 것인가.  
“과학 영재원이 있듯이 예술디자인 영재  
교육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등  
학생과 중 · 고등학생들에게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꿈이  
다. 관련된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일이  
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철저히 준비해  
서 꼭 이루겠다.”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구  
성원끼리 서로 믿으며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이다.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디자인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강민성 기자

김동현 기자

섬 속의 섬 4. 비양도



협재해수욕장에서 바라본 비양도. 동화 어린왕자에 나오는 보아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

언제나 봄날을 선사하는 순수한 섬

한림읍 한림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5km 해상에 비양도라는 작은 섬이 떠있다. 협재 해수욕장에서 보면 수영하면 곧 땅을 밟을 것 같은 거리다. 협재나 금능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보다 더 매력적인 모습에 궁금해지는 섬이다.

비양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배를 타야 한다. 배는 오전 9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 운행한다. 한림항에서 비양도에 도착하려면 15분 정도 배를 타야 한다. 배안은 마치 집안방과 같이 쾌 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신발을 벗고 방바닥에 깔려 있는 방석 위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눈다. “어디 갔다 왔수과?” “밥은 먹어수과?” ...비양도로 들어가는 주민들은 제주도 사투리를 처음 접하는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비양도로 들어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비양도 사람들의 순박한 이야기 덕분이다. 비양도에는 재밌는 전설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비양도는 원래부터 지금의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 고려시대 중국에서 한 오름이 날아와 하귀 앞바다에 떨어졌다. 그것을 보고 당시 하귀 사람들은 ‘저런 섬이 있으면 불운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며 욕을 했다. 섬도 그 욕을 들었는지라 이번에는 애월 앞바다로 떠내려 갔다.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앞바다에 섬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욕을 했다. 그렇게 섬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정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한림 앞바다이다. 한림 사람들은 ‘보기 좋은 섬이 왔다’고 생각하며 그 섬이 계속 동네를 지켜주며 그 자리에 있길 바랐다. 그래서 비양도가 지금의 한림 앞바다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봄날이 오다

고현정, 지진희, 조인성이 나왔던 ‘봄날’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는가? 사고로 인해 어릴 적 기억 밖에 할 수 없는 은호를 계속해서 보살피는 정은. 그런데 정은을 작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은섭이다. 은섭은 은호가 기억상실로 자신의 사랑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틈을 기회로 여겨 정은에게 고백한다. 하지만 정은은 명언을 남기며 그를 거부한다. “빨간 사탕 없다고 노란 사탕 먹고 그렇게 아니잖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해준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



수레를 세워놓고 해녀들이 겨울바다에서 물질 중이다.

를 비양도에서 촬영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양도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라도 여수에서 온 김현철, 고선희 부부는 드라마에서 봤던 비양도를 직접보고 싶어서 제주도에 왔다. 그들은 “날씨가 추운데도 푸른 바다를 보니 봄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드라마 ‘봄날’의 연인처럼 걸어가는 그들에게서 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비양도는 사람들에게 봄을 선사하는 곳이다.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곳 비양도에는 해발 114.1m의 비양봉이 있다. 20여 분 동안 나무로 둘러싸인 길을 오르다 보면 해송, 대나무 그리고 비양도에서 만 자란다는 비양나무를 볼 수 있다. 다양한 풀내음을 맡으며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봉우리에 도착한다.

비양봉이 비양도의 태고적 아름다움을 같이 하는 곳이라면, 생긴지 50여년 정도로 생태계에선 막내 나이지만 신비한 매력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 비양봉에서 경치를 감상할 때 제일 처음 마주하는 풍경, ‘펼랑쭈’이다. 이곳은 연못인데 독특하게 바닷물로 이

로 들어간 해녀들의 것이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추운 겨울바다에 들어간다. 비양도의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가버렸다. 비양도에서 예전에 많이 잡히던 물고기들이 기온상승으로 인해 잡히지 않아 돈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비양도에서 유일하게 애를 넣고 사는 젊은 사람을 만났다.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하예경(41)씨. 그녀는 10년전 한림 남자와 결혼해 비양도에 들어왔다. “비양도에서 벌어들인 돈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두 떠나버리니 남은 사람은 어르신들뿐이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하루 두 차례 왕복하는 배편에 의지해 물의 소식을 기다린다. 풍랑주의보가 내려 섬을 떠날 수 없을 땐 새가 인간보다 더 outgoing하기도 하다. 그래도 그녀는 비양도를 떠날 수가 없다. 섬이 삶 속에 들어와서 이젠 섬이 자신이 됐다고 한다. 비양도 사람들은 그렇게 섬을 지킨다.

**순수함을 찾아주는 섬, 비양도**

비양도를 빠져나올 때, 비양도에 들어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인다. 비양도를 나오는 배위에서 비양도를 보면 어릴 적 보았던 어린왕자 책에 나오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볼 수 있다. 순수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동화 속 그 그림처럼 비양도도 순수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곳이다. 순수하지 않던 사람도 비양도에 갔다 오면 순수함을 되찾아서 동화 속 그림을 볼 수 있다.

강민성 기자 이번 ‘비양도’를 마지막으로 <섬 속의 섬> 연재를 마칩니다. <편집자주>

제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여행을 통해 희망을 기획하는 사람

관광객들이 제주에 왔다. 비싼 차를 몰고 골프를 치러 가고 외부자본인 대형규모의 쇼핑몰에서 돈을 쓴다. 신문과 TV에서는 하루에 몇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며 증가된 숫자들을 내보였지만 그녀는 씩 달갑지 않았다. ‘왜 그들의 여행방식은 환경을 파괴하고, 제주지역 주민을 소외시키는가. 자연을 끌어안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방식의 여행은 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자리했다.

198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낸 고재량(46)씨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환경학을 전공하던 20대 여대생의 눈에는 증가된 관광객 수치보다 얼마나 친환경적인 관광을 하는지, 제주에 대한 연대감을 느끼고 가는지가 더 중요했다. 그런 생각이 차츰 쌓이면서 2003년에 ‘제주생태관광’이라는 여행을 차려 법인등록하기에 이르렀다.

“대안여행에 대해 20대 때부터 고민하긴 했지만 직접 여행을 운영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주역사바로알기’라는 모임에 들어서 역사여행도 다니고 오름동아리를 통해 오름기행을 다녔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밌으면 다른 사람들도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거죠. 그래서 그 때 몇몇 지인과 함께 여행사를 차리게 됐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생태관광’은 그 단어조차 낯설었다. 그 당시 제주에선 덤핑관광이 쏟아졌다. 여행사에서는 제주 왕복 2박3일 코스에 20만원도 안 되는 비용을 책정한 관광객들을 유혹했다. 생태관광에선 오히려 가격을 책정해 여행상품을 내놓았다. 덤핑관광에 익숙한 관광객들은 다른 여행사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이 불편했다. 하지만 여행을 다닐수록 이러한 방식이 편하다는 걸 깨닫는다. 여행사들은 저가의 여행상품을 내놓아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관광객들이 또 다른 주머니를 계속 쓰게 유도한다. 쇼핑몰, 비싼 관광지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챙기는 것이다. 여행사와 대형 관광지는 이득을 보지만 관광객들은 바가지 썼다는 기분이 들고,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주민은 소외된다.

“생태관광은 기존 관광과 비교해서 물질적 수익창출은 덜하지만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진 않아요. 생태관광은 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경제를 살려주고 사회 공공성을 가져간다



제주생태관광대표 고재량씨

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운영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중간 매개체가 되는거죠. 여행을 통해 지역주민과 직접 만날 수 있게 연계해주고 제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거죠.”

제주와 관련해서는 오지랖이 넓은 그녀는 외지인들에게 제주의 것을 하더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바쁘다. 제주의 자연환경도 보여줘야 하고 강정이 평화의 성지가 될 수 있게 ‘강정평화여행’도 기획했다. 이래저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탓에 아이도 잘 챙겨주지 못한다. 그녀는 농담조로 “우리 아이는 짜장면 집 아줌마가 키웠다고 할 정도로 음식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고 말한다.

쉬지 않고 제주 여행에 대해 고민하고 움직이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꿈꾸기 때문이다. 이런 그녀의 여행에 대한 마음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통했다. 이왕이면 착한 소비를 하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난 것이다. 섬 밖의 외지인들이 제주에 와서 제주의 작은 마을, 오름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물어 볼 때마다 몽글몽글한 감정을 느낀다. 착한여행, 공정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올라갔다. 그녀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한다.

“제주가 자본에 의해 휘둘리는 사회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고 소통하는 곳, 한사람 한사람, 들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한 섬, 평화의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주가 언제 부유하게 살았나요? 그저 마음을 조금씩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소외되지 않는 섬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성미 기자

# “기자 (記者)”

명사)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

## 당신은 기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설명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제주대신문사 기자는 다릅니다.  
제주대신문사 기자는 제주대학교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기사가 활자로 인쇄되어 나오는 순간, 당신은 희열을 느낄 겁니다.  
그 희열을 당신도 느껴보고 싶다면, 오십시오.

### 제주대신문으로

## 제주대신문 60기 수습기자 모집

수습기자가 되면 ...

- A급 장학 혜택 장학금 및 취재로, 원고료, 식비 제공
-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등 해외 원정 취재)
-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컴퓨터
-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 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 을 이용한 신문 편집 교육

##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보람찬 대학생들을 보내고 싶은 1학년 새내기  
전화번호 :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위치 : 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아라울 건물 3층)

무론유설



강민석  
미술학부 조소전공 교수

언젠가 TV에서 얀 아르투스 베르트랑(Yann Arthus-Bertrand, 1946~)이라는 프랑스 항공사진작가에 대해 방영하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다. 방송 내용은 150여 개국을 돌며 지구의 모습을 기록해온 얀이 독도와 경주, 남해안 일대 등을 촬영하여 ‘하늘에서 본 한국’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열기구를 타고 공중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보면 그 경이로운 장면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특히 그의 작품에서는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장소도 전혀 다른 낯선 모습으로 다가와 장관을 이룬다. 얀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사진을 통해 어떤 사물이나 세계의 모습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얀은 한국 촬영을 마치면서 “한국의 모습을 보면 편리한 수준까지는 온

기자칼럼



김소영  
국어국문학과 2

4·11 총선을 앞두고, 두근대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커져간다. 변화를 갈망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심경이지 않을까 싶다. 바로 최근 민주통합당의 행보 때문이다. 쇄신은 눈을 찢고 찾아도 볼 수 없는 공천 결과, 속된 강경이란 말을 여실히 보여 주는 모바일 경선, 말뿐인 야권연대 형성… 요즘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이번 총선에

기고



김정찬  
성균관대 경영학부 3

대학신문의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우리가 간다! 성균관대학교 학보사 성대신문사 기자 출신의 학생으로 이뤄진 저희는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8기’의 이름으로 지난 12월과 1월에 걸쳐 일본의 와세다대학교 스포츠 신문, 오사카 UNN 신문사와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신문사 △에일대학교 신문사 △시민단체 campus progress를 탐방하고 돌아왔다.

이번 탐방 연재는 대학언론의 위기 및 대안의 공유를 통해 현재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타교생이지만 대학언론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명의 독자로서, 그리고 한때 대학언론에 몸 담았던 전직 학보사 기자로서 이번 기고를 통해 독자들에게부터 더욱더 사랑받는 제주대신문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학언론의 문제

대학언론에서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대학언론의 문을 두드리는 지원자보다 더 많은 수의 신입생이 언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학언론의 현실이 이들의 발걸음을 막고 있다. 우리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류하고자 시도했고, 그 중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골라내려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결론은 대학언론

독자기고



고동현  
행정학과 2

새 학기가 시작되면 많은 신입생들은 동아리에 관심을 갖는다. 운동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이와 관련한 동아리를, 음악에 관심있는 학생은 음악관련 동아리를, 스포스에 관심있는 학생은 봉사동아리나 영어공부를 위한 동아리에 가입하면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아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 대부분의 동아리들은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활동한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의 목

것 같은데, 삶의 미적 가치까지 추구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말이 인상적인 이유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매우 상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얀이 말한 그 편리한 사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아직도 어딘가 불만족스럽다. 그 혼란 구호에서 반복되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너무나도 많은 수치고 통계조건들은 차치하고, 그가 말하는 또 다른 조건, ‘삶의 미적 가치 추구’를 위한 수준이란 어떤 것일까?

압축 성장으로 무한 경쟁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 사회에서 최근 개인의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사회적 담론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의 관심이 물질적인 풍요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는 방법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정신적으로 고양된 삶의 추구에 도움을 주는 문화예술 활동을

기대를 걸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간 국민들은 MB정권의 실정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칼을 잡고 기다리던 이번 4·11 총선에서, 사람들은 다시금 야권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갈 길을 잃었다. 제1야당의 움직임이 여당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공천에서는 인사 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 한명숙 당대표 주변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계파간 자기 사람들 쟁

위기의 대학신문, 다시 날개를 펼치다

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가 △독립성 부족 △전문성 부족 △무관심이라는 데에 이르렀다.

둘파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 독립성 부족의 문제는 학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대학언론을 동아리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학교 당국은 학보의 완결성을 위해 주간교수를 임명하고, 다양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반면, 학보사 측은 스스로 언론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기에 학교 측의 권어를 편집권 침해로 인식하곤 한다. 때문에 여러 캠퍼스에서 학교 당국과 학보사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두 번째 전문성 부족의 문제는 △체계적 교육의 미비 △지원율 감소 △실제 언론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점들이 중첩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대학언론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유출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대학언론의 질적 향상이 독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독자들의 무관심이라는 세 번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날로 치열해지는 취업전선은 독자들의 무관심을 가중시켜 대학언론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돌파를 위해 우리는 일본과 미국을 탐방했고, 이들의 모습에서 실제로 신문사 안에 있을 때에 체감하기 힘든 위기의식과 개선의 필요성을 현실적 대안의 모습으로 구체화하고자 했다.

위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주변에서 늘어난 문화예술 관련시설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삶의 질적 추구 지수는 가파른 오름세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이 또한, 그 내용보다는 시설의 개수와 통계라는 양적 기준에만 급급 하는데서 오는 것은 아닐까? 이처럼 문화를 계량적으로만 평가한다면 또 다른 양적성장식의 조악한 개발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이 우리 삶의 격조를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질적 가치의 기반 위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가 튼튼한 진정한 문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문화예술의 순환구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육시스템이다. 현재 한국에서 교육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것에만 편중되어

기기에만 급급하다. 쇄신을 주도하던 이들은 졸졸이 탈락됐고, 정치 신인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야권연대 형성에는 왜 침묵으로만 일관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통합민주당 자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MB정권을 보며 느껴온 환멸, 그리고 혁신예의 기대가 그나마 민주통합당이라는 대체 수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그러한 희망이 곧바로 자신들에게로 이어진 것인 줄 아는 착각을 하고 있다. 항상 진보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날려

있다. 하지만 인간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정서함양 또한, 당연히 중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공감능력과 정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의 뇌는 논리적인 좌뇌 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우뇌와 함께 ‘두 개의 뇌’로 구성되어 있다. 감성과 이성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며 개발될 때 인간은 조화롭고 균형적인 인격을 갖추게 된다.

특히 창조적 콘텐츠가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예술교육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문화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제고시킬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대에서 오랜 기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여러 단과대학으로 나뉘어 있었던 예술관련 학과들이 비로소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묶여 보다 전문적인 예술교육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버리곤 했다. 지금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여 너무나 속상하다.

때문에 민주통합당의 현 상황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부능과 오만, 이 두 가지가 민주통합당의 발목을 붙들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놓칠 참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쇄신을 주도하는 인사들로 후보들을 구성하고, 야권과의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는 등 하루빨리 기울어져 가는 민심을 다시 잡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적으로 분명 성공적인 시도라고 판단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탐방을 통해 대학언론 부활이라는 프로젝트 자체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 대학 생활중, 그리고 풀타임 언론이 사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확립돼 있었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책들이 구비돼 있었고, 국내 학보사와 미국의 하버드, 예일대학교 학보사 간의 현실적 여건 차이는 이미 너무나 컸다.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온 발전상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보다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끊임없는 자극과 발전 욕구를 통해 대학언론은 사회적으로 꼭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또다른 결론이었다. 대학언론은 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인 의견표출의 자유를 처음으로 학습하는 도양인 동시에 캠퍼스 자체를 하나의 사회로 구성하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돈이 안 된다고, 귀찮거나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몰아낼 것이 아니라 더 귀찮고 더 시끄럽워지도록 도와줘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은 다른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언론에 관심을 갖고 신문을 접어드는 독자들의 손에서, 그리고 그 손에 부딪지지 않도록 뛰어다니는 학보사 기자들의 발에서 나오는 것이다.

들에게 있다. 그들이 갓 들어온 신입생들과 친해지면 동아리 운영이 쉬워진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동아리마다 본래 지향하던 바가 없어지고 그곳의 존속여부가 없어지게 된다.

둘째, 동아리연합회에 문제가 있다. 그들이 동아리에 대한 지속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동아리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 동아리 간부들은 한명이라도 더 동아리에 남게 하기위해 자주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그러한 모임에만 치중하게 되고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동아리를 단순히 친구들을 많이 사귀기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그 동아리는 자연스레 친목도모를 위한 매개체로 남는다.

각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학생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의 관심이 인맥형성에만 집중되는 것은 학생들의 인식에도 잘못일 수 있다. 그곳에서 취미를 개발하고 그 취미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야말로 나중에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인맥, 아니 더 정확히는 인연이 될 것이다. 우리대학 동아리가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으면 한다.

동문칼럼

중앙도서관 운영 개선해야

제주대학교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다. 제주지역 국립대학교로서의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크다.

중앙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442종의 학술지를 구독하고 106만3496의 장서가 있는 중앙도서관은 제주도내 공공도서관 가운데 가장 크다. 대학의 심장이자 지역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게다가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은 공공 도서관의 의무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내겐 허울 좋은 미사여구일 뿐이다. 중앙도서관의 외형 성장과 첨단 의 도서관리 시스템은 팔목할만한 일이지만, 폐쇄적인 운영형태는 내가 제주대학교 83학번일 때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다.

현재 중앙도서관은 마치 거대한 독서실과도 같다. 제1열람실과 자유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할 뿐, 국내서 자료실은 대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학기중),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방학중)만 운영한다.

국외서 자료실과 향토 자료실, 참고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보존자료실, 학위 논문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만 열려 있다. 토요일·일요일은 딱 닫혀 있다. 단적으로,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폐쇄적 운영형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는 학부 전입학생들에게도 여간 불편스러운 게 아니다. 하물며, 직장에 다니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학부 야간강좌부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오죽하겠는가? 한마디로 고통이다.



좌승훈  
경영학과 83학번  
라이프 스타디움팀장

주중에는 일 때문에 낮에 도서관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쩌다 조기 퇴근을 하더라도 제한된 열람시간 때문에 쫓겨나기 일쑤다. 게다가 주말이면 아예 접근조차 안 된다. 먹통도 이런 먹통이 없다.

중앙도서관이 아무리 많은 지식 정보를 소장하더라도, 활용도가 낮다면 그 의미는 반감되고 만다.

거창(?)하게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달라고도 않겠다. 향토자료실, 참고자료실, 학위논문실 등에 대한 주중 야간 개관시간을 1~2시간만이라도 연장해 달라. 일요일은 천다 하더라도, 토요일 오전에 한해, 격주라도 좋다. 개방 범위를 확대해 달라.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고 했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정보의 축적과 활용도에 따라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동네 독서실 수준의 도서관 운영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제주대학교가 대외에 표방하는 바, ‘글로벌 시대의 지역 거점대학’이니, ‘글로벌 스마트 융합인재 양성’, ‘혁신하는 명품대학’은 한낱 구호일 뿐이다. 도서관이 변화의 중심에 서라. 행정편의적인 도서관 운영형태의 개선을 거듭 촉구한다.

독자기고

물가 상승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언 초부터 국내 물가 상승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주로 외국 기업 제품의 가격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입하는 식음료, 기호품목의 가격 인상이 대부분인지라 등복귀, 생활비, 취업준비 등 고민을 안고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어깨를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품목을 살펴보자면 지난해 연말 버거킹, KFC, 코카콜라 등이 이미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고, 얼마 전 던킨도너츠 커피, 맥도널드의 가격인상, 외산담배 말보로, 팔리아먼트 200원 인상 등 대부분 젊은 세대에게 더욱 익숙한 제품들이라 더욱 관심이 간다.

곱쓸한 점을 꼽자면 외국 기업들의 가격인상 이유의 대부분이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영성 악화라고 밝히는 데에 있다. 국내기업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이라는 큰 방향에 동의하여 기업 내부 비용절감 노력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외국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은 웬지 국내시장에서의 충분한 인지도와 점유율 확보 후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 같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일례로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접하게 된 외국 담배인 말보로, 팔리아먼트의 가격인상 관련 내용의 경우, 필립모리스코리아가 국내시장에서 2008년 848억원, 2009년 947억원, 2010년 133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최근 3년 간



이로온  
법학부 3

156%의 영업이익의 상승률을 기록한 점과, 국내 소비자들에게 벌어들이는 돈 전부를 본국으로 송금하고 국내 사회공헌이나 재투자에는 무심해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결국 이는 외국 기업들이 물가 상승 분위기를 활용해 조정하고, 요즘 한국 젊은 세대의 대다수가 가격인상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의식 있는 소비를 하고자 하는 노력, 슬관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 제품에 대한 지나친 맹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외국 제품을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 맞다. 그러나 내가 소비하는 이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 이 회사가 사회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고용은 또 얼마나 창출하고자 노력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더 많아야 대학생들의 권리를 앞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외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학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신문에 게재될 독자기고에 대해 2만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press@jejuu.ac.kr





고남희(언론홍보학과 3) 씨가 마스크라를 이용해 속눈썹을 길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 화장, 안하고는 밖에 못 나가죠!



20대 대학생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까. 학업, 취업, 연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외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좀 더 예쁜 외모를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 학생들은 '화장'을 한다. 성형을 능가하는 화장술로 완벽 변신을 시도하는가 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화장을 통해 120퍼센트 발산하기도 한다. 대학생들의 센스 있는 화장의 세계로, 모두 같이 빠져보자.

## 무쌍녀들의 이유 있는 고집, 아이라인

대세는 쌍꺼풀 없는 눈! 일명 '무쌍녀'들은 더 이상 쌍꺼풀이 없다는 사실을 콤플렉스로 여기지 않는다. 다소 밋밋할 수 눈을 고양이같이 도도하게 변신시킬 수 있는 '아이라이너'가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간호학과 2)씨는 "평소 아이라이너를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 번 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의 달라지는 시선을 느낀 적이 많다"며 "아이라인을 그리면 쌍꺼풀 없이 둥그랴던 눈이 가로로 길게 찢어져 완전히 이미지로 바뀐다"고 말했다.

김민정(중어중문학과 3)씨는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 선명해지는 눈매가 좋아 학교 다닐 때도 매일 그리고 다닌다"며 "이제는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으면 외출을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요즘 김연아, 가인, 소희 등의 인기 스타들의 공통점, 바로 무쌍녀에 진한 아이라인이다. 쌍꺼풀 없는 밋밋한 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성형수술이 아닌 아이라인 화장술로 개성적인 얼굴을 연출해 보자.



## 남자의 화장은 무죄!



남학생들 역시 보다 얼굴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화장품에 손을 뻗지 않을 수 없다. 남자가 화장한다고 남사스럽게 보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피부 트러블과 피부색을 보정해 주는 비비크림부터, 눈매를 살리기 위해 쓰이는 아이라이너나 마스크라까지, 이용하는 제품의 종류도 천차만별이다.

비비크림을 애용하는 김

용성(에너지공학과 1)씨는 "피부 트러블을 가리기 위해 비비크림을 바르게 됐는데, 평소 콤플렉스로 생각해 오던 거친 피부가 커버돼 유용하다"고 말했다.

김수민(법학부 3)씨는 "열은 눈썹을 짙게 만들기 위해 아이브로우를 이용해 눈썹을 그릴 때가 있다"며 "그리기 전과 비교해 훨씬 더 세고 반듯해지는 인상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 역시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관대하다. 사회학과를 졸업한 여명철씨는 "남자가 화장을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화장에도 끄떡없는 나만의 피부 관리법

매일 화장을 하고 다니면 고운 피부가 빨리 상할까 우려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피부 관리 노하우로 이러한 불안을 해소한다.

피부 타입이 지성인 김하정(중어중문학과 2)씨는 "화장을 지울 때 리무버로 눈가를 지우고 스킨을 바른 뒤, 로션 대신에 수분크림을 이용한다"며 "수분크림은 수분이 많고 유분이 적어 나 같은 수분 부족형 지성 타입의 피부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강유나(언론홍보학과 2)씨는 "자기 전에 화장을 지우지 않으면 다음날 피부가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도 촉진된다"며 "아무리 귀찮더라도 화장은 꼭 지우고 자야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막 대학에 발을 내딛은 새내기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는 화장.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신에게 맞는 화장법을 찾고 관리한다면, 선배들 못지않은 '화장의 신'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김소영 기자

## 문화단신

### “제주 유배길에서 꽃차를 만나다”

제주대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 주최

제주의 유배문화 콘텐츠와 제주 꽃을 융합한 '유배시화·꽃차전'이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센터장 양진건 교수)가 주관한 이번 특별전은 '제주 유배길에서 꽃차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연다.

전시 공간에는 추사 김정희, 동계 정은, 총암 김정, 면암 최익현, 규창 이간, 윤양 김윤식, 복원 김준택 등 조선시대 제주 유배인들의 꽃을 노래한 한시 21편이 펼쳐져 있다. 센터장이자 시인인 양진건 교수의 12편의 시도 함께 전시돼 있다.

더불어 전시에 어울리는 꽃차와 꽃 그림도 함께 선보여 시의 운치를 한껏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꽃차 전시에는 지난해 열린 제1회 전국꽃차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효숙 제주 꽃차연구회장이 참여작가로 나서 유배한시 속에 담긴 꽃들을 찻잔 속에 담아놓았다.

이와 함께 센터 연구원인 강동균 서양화가가 미술작품으로 형상화한 제주의 꽃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양진건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제주유배문화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며 "이를 통해 유배가 단지 과거의 형벌로만 인식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중요한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는 지난해 5월 '추사 유배길'을 개장한 이래 다양한 유배길을 개발, 개장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에는 '유배영화제', 12월에는 '유배음악제'를 개최해 제주의 대표적인 유배문화 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 2012 신간모음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 건축계획론



생활패턴과 삶의 공간이 변해가는 사회변화를 건축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다룬 책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에 중심을 두면서도 새롭게 내용들을 추가한 책이다.

저자명: 김태일 지음 / 정가: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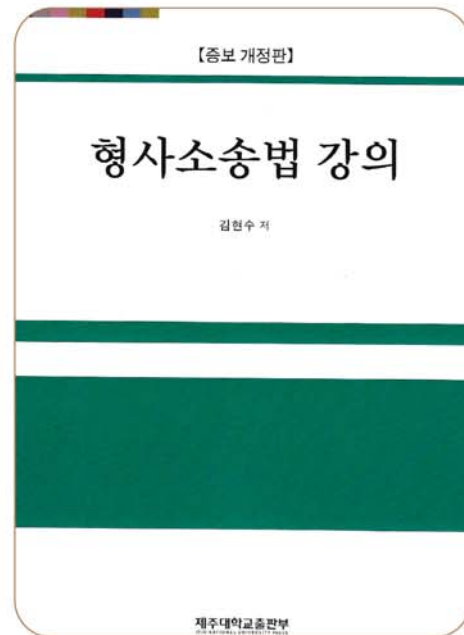
### 해양생산기기학



수산계 대학에서 어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강의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어선어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참고서로도 이용되고 기본적인 사항의 이해에 중점을 둔 책이다.

저자명: 김용해, 서두옥, 이대재, 조봉곤, 이창현 지음 / 정가: 14,000원

### 형사소송법 강의



이번 제 3판은 그간의 판례 동향과 학설의 흐름 및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중요 판례의 요지를 각주에 가급적 많이 인용하여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였다.

저자명: 김현수 지음 / 정가: 20,000원